

시론

대학이 도시를 살린 사례, 독일 아헨공대와 아헨시



주정민 전남대학교 대학원장

아헨시는 독일 서쪽, 벨기에와 네덜란드 접경에 있는 인구 23만 명 규모의 도시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도시였지만, 현재는 IT, 자동차·전자, 스마트 팩토리, 로봇 공학 등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는 독일 대학의 혁신 모델로 손꼽히는 아헨공대(RWTH: Rheinisch-Westfälische Technische Hochschule)가 있다.

아헨공대는 1870년, 라인 지방 최초의 공업 대학으로 설립됐다. 당시 산업화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자연과학과 공학 중심의 9개 학과로 출발했다. 1960년대에는 인문학, 의학 등 전공을 확장하며 종합대학으로 발전했다.

현재 아헨공대에는 약 4만4천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9천여 명의 교수·연구진과 직원이 근무한다. 2025년 QS 세계대학 순위에서 99위를 기록했으며, 독일 내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서울대가 QS 순위 31위권인 점을 고려하면, 아헨공대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특

히 기계공학 분야는 독일과 유럽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평가받는다.

아헨공대의 이러한 명성은 아헨시와의 긴밀한 협력에서 비롯됐다. 아헨공대는 2007년 독일 정부가 9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우수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을 계기로 아헨공대는 아헨시와 공동으로 2020년까지 미래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아헨공대가 추진한 미래전략 중 대표적인 사업이 'RWTH 캠퍼스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아헨공대가 95%, 아헨시가 5% 지분을 가진 공동 법인 형태로 운영했고, 유럽 대표 연구·산업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약 250만㎡ 부지에 16개 분야별 대형 연구 클러스터와 수십 개의 혁신센터를 세워 첨단 기술 연구와 산업 간 협력을 촉진했다.

이 사업으로 현재 아헨공대 캠퍼스에는 바이오 의료 공학, 지속 가능 에너지, 광학, 생산 공학, 중장비 구동, 스마트 물류, 건설 등의 대형 클러스터가 형성됐다. 200여 개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고, 유명한 프라운호퍼 연구소 3개가 이곳에 있다. 46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하든 챔피언급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으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Siemens, BMW 그룹, SAP, Philips, Bosch 등이다.

아헨시는 도심 기차역 부지를 대학에 제공해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창업 생태계도 조

성했다. 아헨공대는 산학협력 전문기관을 캠퍼스에 두어 학생과 연구자의 아이디어 사업화와 상용화를 지원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누적 스타트업이 600개를 넘어서며 유럽의 대표 창업 도시가 됐다.

아헨공대와 함께 추진한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아헨시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의 산업 혁신을 이끄는 도시로 성장했다. 특히 '유럽의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Industry 4.0을 견인하는 상징적인 도시가 됐다. 이제, 아헨공대의 학생과 연구 인력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관심 기업에 정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강력한 산업인프라 덕분에 아헨의 인구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만5천 명 증가했다. 인구 증가로 아헨시는 도시 경제 활성화, 교육 인프라 확충, 국제 인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그만큼 도시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이 커졌다.

아헨공대와 아헨시는 '대학과 도시가 협력하면 도시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도시와 대학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도시들이 대학과 긴밀히 연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음식·숙박 서비스 혁신없인 '관광 전남' 위상 회복못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관광 서비스 대전환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위생과 친절, 합리적 가격이 기본이 되도록 위생 관리 대폭 강화, 진심 어린 환대문화 정착, 관광객 불편 해결 시스템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최근 잇따른 음식점 불친절, 잔반 재사용, 숙박업소 위생 문제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공개 사과했다.

남해안 거점 미항이라는 여수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져 전국적인 파장이 일었다. 유명 식당에서 2인분을 시키고 홀로 식사하는 유투버에게 "빨리 먹으라"며 면박을 주는가 하면, 1박에 40만원을 받는 리조트형 호텔에서 "갈래"라 적힌 수건을 손님에게 제공했다. 또 다른 식당에서는 남은 반찬을 다시 내놓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정이 이러하니 지역 식당·숙박업소의 자정 결의까지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고 관광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말았다. 글로벌 명소로 뜬 시점에서 실로 엄청난 타격이라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전 도민과 관광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국제 예술축

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수목비엔날레와 남도 미식산업박람회 등 전남에서 대규모 행사가 줄 잇는 만큼 품격 높고 믿을 있는 서비스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따뜻한 응대를 위해 최대한 힘써야 한다. 전국 관광지에서 종종 지적되는 바가지 요금 역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물론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즉각 신고하도록 하고,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반면 우수 업소에 대해선 인센티브로 걸맞게 우대해야 한다.

열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바로잡기 쉽지 않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더 친절하고,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야 한다. 관광 1번지 대전환의 약속이 반드시 실천되길 바란다. 올해 주요 관광지 상당수가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로 방문객이 늘고 있다. 숙박·위케이션 반값 이벤트, 특화 상품 운영, 관광지·체험시설 시군 연계 활용 등 과격적이고 실용적인 프로모션이 인기의 비결이다. 특별한 추억을 쌓으며, 여행의 즐거움을 선물하는 매력적인 남도의 위상이 흔들려선 안 된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부 국민들에 할 말도 없나

대한민국 국격의 한없는 추락 앞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 김건희 여사까지 같은 시기에 구속된 헌정사상 최초의 상황을 맞닥뜨렸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자본시장법 위반, 재보선·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치자금법 위반, 건전법사를 통해 부당한 청탁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들었다.

김씨에 대한 수사 대상은 16명에 이른다.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다수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등의 규명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허위 이력 지적에 김씨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내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V0'라는 은어로 정·관가에서 회자되기까지 했다. 후진국에서 있을 만한 국정 개입으로 실제, 비선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파면으로 물러나기까지 갖가지 논란에 휘말렸다. 2023년 11월 최재영 목사

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된 것은 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도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가스모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각각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는 물론이고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내란 재판 출석에도 연거푸 불응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진정한 참회와 사과를 바라는 국민 염원에 반하는 행태다. 정치 보복이라고 강변하고 끝내 부인한다고 해도 결국에 국기 문란의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인과응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권력 사유화의 중대 범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성역은 없다. 추종하거나 동조한 세력의 죄상까지 낱낱이 캐내 본보기 삼아야 한다.

'몰랐다.' '아니다.' 뻔히 들뜬날 거짓말을 했다. 금품 수수만 보더라도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국민들은 착잡하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의료칼럼

호랑이에게 물린 것처럼 아픈 '통풍 관절염'



곽희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젊은 남성들 중에 유독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붓고 아픈 환자들이 있다. 이는 최근 발병률이 증가한 '통풍'을 의심해볼 수 있다.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여 '통풍(痛風)'이라 부르며, 한의학에서는 호랑이에게 물린 정도로 통증이 심해 '백호역절풍(白虎歷節風)'이라 불렀다.

통풍은 몸의 대사 이상으로 발생한다. 음식을 섭취하면 요산이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생성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요산 일나트를 결정이 배출되지 못하고 관절과 연부조직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비만, 음주, 과식, 스트레스 등이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통풍은 병기에 따라 무증상성 고요산혈증, 급성 통풍 발작,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나뉜다. 무증상성 고요산혈증은 체내에 요산 수치가 높긴 하지만 통풍 증상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요산 농도가 9mg/dL 이하라면 특별한 치료는 요하지 않는다.

급성 통풍 발작은 흔히 보이는 통풍성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30~50대에 남자에 호발하며 엄지발가락의 중족지관절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간혹 발등, 발목, 무릎, 손목 등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급성 통풍은 치료를 받으면 1주일 내에 호전되지만 1년에 1~2회 정도로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만성 결절성 통풍은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지 10년 정도 돼 다발성 관절염이 나타나며 통풍 결절이 보이는 상태다.

통풍의 진단은 진찰, 혈액검사, 관절강내액 검사, 영상검사를 활용한다. 우선 관절의 통증 부위를 확인하고 병력정취를 통해 일차적으로 통풍을 의심한다. 혈액검사에서는 요산 수치를 확인하는데 남성의 경우 6.5mg/dL 이하, 여성은 6.0mg/dL 이하가 정상이며 이보다 높으면 고요산혈증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고요산혈증이 항상 통풍 관절염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관절강내액 검사는 초음파를 통해 관절 세침으로 통증부위를 흡인해 관절강내액을 채취 및 검사하는 방법이다. 내액에서 바늘 모양의 요산결정이 증명되면 통풍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검사는 X-ray나 초음파를 활용해 관절부위 뼈의 미란과 파괴를 확인해 통풍 진단에 도움을 준다.

통풍의 치료목적은 급성 통풍 발작에 의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파괴 및 변형을 방

지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양방의학의 약물치료, 한방의학의 침구치료, 생활습관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생활습관 교정을 보자면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 고지방과 고칼로리 식단은 피하며 수분섭취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퓨린 함량이 많아 요산을 일으키는 동물 내장류와 과당함량이 많은 음료나 간식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음주 역시 조절해야 하며 그 중 맥주가 퓨린 함량이 높아 요산수치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어 멀리해야 한다. 저지방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커피는 요산 배설을 촉진하므로 추천할만한 식품이다.

약물치료는 통증을 조절하는 진통소염제로 빠른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통증이 회복되고 나면 요산함양 억제제를 투여해 혈청 요산농도를 직접적으로 낮춰 통풍 관절염을 예방한다. 침구치료는 관절의 요산 및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통풍이 발생한 관절 자체에 침치료도 효과적이며, 족삭시리혈이나 삼음교혈을 자극하면 통증을 완화해준다.

통풍은 호랑이에게 물린 것처럼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하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통풍이 있더라도 꾸준한 생활교정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니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길 바란다.

독자투고

생명을 지키는 119, 정말 위급할 때만 불러주세요

119는 언제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119 구급대의 출동 중 일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 신고로 인해 실제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일이 늘고 있다.

실제로 여수 지역에서도 단순 감기, 만성 통증,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춘 예약성 이송 등으로 119를 부르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비응급 신고가 누적되면 심정

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과 같은 중대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와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 이는 누군가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119 구급차는 무제한 자원이 아니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운영되는 공공 자원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 구급신고 중 약 30~40%는 비응급 사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19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119는 정말 위급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시민의 성숙한 의식과 배려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지용·여수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장〉

찜통더위 노출 농부 폭염피해 건강 쟁겨야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최고를 기록하면서 저마다 팔벌 굵은 더위에 허를 내두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도심과 농촌이 별반 다를게 없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경우 매년 여름철 혹서기에 농사일을 하던 노인들이 고온의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열사병이나 일사병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젊은 사람이야 갈증이 나면 물을 찾아 마시게 되지만 수분함양량이 적은 노인분들의

경우 갈증을 느끼는 반사속도가 그만큼 늦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바쁜 농사와 밭농사일에 건강관리는 먼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보니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때에 열사병에 걸린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김덕형·장성경찰서 경무계장〉

무엇보다 요즘같은 맹렬한 햇볕이 가장 강하고 뜨거운 한낮 시간대 농사일을 멈추고 체온을 충분히 낮춰 주고 필요한 농사일은 무더위가 덜한 아침이나 저녁시간대를 고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영광 다카시 광장**

**간이역** **이도영**

가다림이 서성대는 플랫폼  
이젠 하루 서너번 타고 내리는  
노인들 뿐  
땀방울 역사에는 짐묵만 가득하다

※시작노트  
옛날엔 변잡하던 농주역  
지금은 간이 역으로 변해있었다  
무더운 여름 바람이 행하니  
찬 바람처럼 느껴지는 하루였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입부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